



## 전쟁 중인 두 검: GILLETTE 대 WILKINSON

---

아버지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.

가족은 아래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산골 마을에 살았다. 돌집들에서 보면 세상은 멀게만 느껴졌지만, 모든 사건은 결국 산을 타고 올라왔다.

가족은 노동조합 사람에게서 염소 한 마리를 샀다. 한때는 별이가 되던 짐승이었지만, 주인은 그것을 팔기로 했던 것이다.

매일 아침 할머니는 그 염소의 젖을 짜 보려 하셨다.

젖은 늘 모자랐다.

아버지는 여느 아이들처럼 아침밥을 원하셨다. 그래서 식탁에 잔 하나가 나타났다: 묵은 빵, 염소젖 조금, 그리고 하루라도 더 버티게 하려고 부은 산물.

누군가 그것을 전쟁이라 부르기도 전의 전쟁이었다.

새벽이면 아버지는 집에서 조금 걸어 작은 광장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셨다.

거기서 아버지는 그 전쟁을 마치 놀이처럼 지켜보셨다.

비행기들이 지평선을 가로질렀다. 평야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. 폭탄이 비행장과 군사 시설 위로 떨어졌다. 어른들은 속삭이듯 말했지만, 아이들은 위를 올려다보았다.

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것이다.

그 전쟁은 모두를 끌어들었다.

그러나 수천 마일 떨어진 두 사건이 결국 면도날 하나에서 만나게 된다.

독일군은 영국의 공격에 맞서 런던과 다른 대도시들을 폭격했다. 공장들은 생산을 늦췄다. 물자가 귀해졌다. 그 유명한 Wilkinson Sword 면도날마저 선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.

같은 시기에 영국군은 아프리카에서 싸우고 있었다.

거기서 그들은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다.

군대는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.

군대는 더위를 견딜 수 있다.

군대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질병이다.

많은 포로에게 처음 강요된 의식은 연설도, 행진도, 심지어 예방 접종도 아니었다.

면도였다.

깨끗한 얼굴은 더 적은 기생충, 더 적은 감염, 더 큰 통제를 뜻했다.

처음 몇 달 동안 모두가 ‘검’을 찾았다.

‘검’은 거기 없었다.

런던은 그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.

그때 미국이 나섰다.

배들이 식량, 연료, 장비,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물건들 가운데 면도날을 싣고 대양을 건넜다.

포로수용소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.

남자들은 더 이상 ‘검’을 찾지 않았다.

그들은 Gillette를 찾기 시작했다.

제1차 세계 대전이 Wilkinson Sword를 유명하게 만드는 데 한몫했듯, 제2차 세계 대전은 Gillette를 보통 명사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.

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언어가 된 것이다.

몇 년 뒤, 포로와 병사와 노동자들이 이탈리아로, 프랑스로, 이집트로, 그리스로, 혹은 운명이 데려간 어디로든 집에 돌아왔을 때, 그들은 가장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면도날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.

그들은 말했다:

“Gillette 하나 주세요.”

그것이 진짜 중요한 전투였다.

그리고 두 자루 검은 그 전투에서 졌다.

---

*Ferdinando*